

# 朝鮮後期 監營 中心軸의 構成과 職制別 相關性에 관한 研究

崔榮喆

(정회원, 홍익대 건축학과 강사, 공박)

朴彥坤

(정회원,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공박)

## 1. 序論

일반적으로 官員이 집무하는 건물을 官衙라고 지칭하며, 조선시대 外官 중 각 도의 최상위 지방 행정관이었던 觀察使가 집무하던 官衙를 監營<sup>1)</sup>이라고 부른다. 1413년(태종 13)부터 시작된 京畿·平安·咸鏡·黃海·江原·忠清·全羅·慶尙의 8도체제하에서 각 도에는 시대에 지역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監營이 설치되었으며 관찰사를 통해 통치하였다. 監營은 각도 행정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司法·軍事面에서도 중심이었으므로 엄격한 위계질

서를 유지한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해석을 위해서는 최상위 지방관아인 감영에 대한 연구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朝鮮時代 官衙에 대한 연구<sup>2)</sup>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監營에 대한 연구<sup>3)</sup>는 거

2) 李達勳, 조선시대 관아건축물의 양식에 관한 고찰, 충주공전논총15집1호, 1982.

李相楳, 조선시대 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朱南哲,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지116호, 1984.2.

——, 객사건축의 연구, 건축학회논문집3호, 1986.6.

金鍾永, 조선시대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88.

유영수, 조선시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9.

朴彥坤, 「壬辰倭亂以後의 官衙建築에 대한 연구」, 『임진왜란 이후의 조영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재보존진흥협회, 1992.

李炯圭, 朝鮮時代 東軒建築의 構成形式에 관한 研究, 홍익대 석사논문, 1993.

『官衙』 한국전통건축, 1권, 대한건축사협회, 1993.

1) 孫禎睦,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一志社, 1992. pp.119-120.

1896년 13도체제로 행정제도의 개혁이 일어난 뒤 監營이란 명칭이 觀察府로 개칭되었으나 1910년의 지방제도와 행정구역의 개편시에도 지방청 관아명이 통일되지 않아 觀察府·監司營·監營 등으로 불린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감영이란 명칭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의 없으며, 또 監營의 현존 유구는 3개 지역 총 9동의 건물에 불과하고 이들 중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구도 없는 실정이다. 감영의 전체적인 구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료는 일부 지역의 고지도와 지리지나 읍지에 묘사된 지도가 있을 뿐이며 18세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엄격한 신분체제하에서 禮制에 따른 位階를 중시한 儒敎國家였던 朝鮮王朝에서 官衙는 이러한 위계를 가장 잘 표출한 건축으로서 이들 건축의 위계는 18等級으로 나뉘어진 官品에 따라 職制가 달라지므로 당시 職制와 강한 相關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朝鮮時代 地方官衙에 대한 研究는 地方 行政職制와 相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地方官員의 位階上 最上層에 속하는 監司의 執務官衙인 監營은 최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만 既存 研究는 現存 遺構의 절대 부족과 史料의 限界를 이유로 직제에 대한 실증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간과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本 研究는 朝鮮時代 職制에 대한 實證的이고 細部的인 檢討를 바탕으로 朝鮮時代 地方官衙 중 最上位 官衙인 監營의 건축적 구성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朝鮮時代 地方官衙를 再解析하는 試圖的 研究로서 官衙의 復元的 研究에 대한 基本方向을 제시한다.

특히 朝鮮時代의 監營에는 1인 또는 2인이 中央에서 파견되는 지방관아와는 달리 監司를 비롯한 다수의 관원이 파견되었고 이들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많은 수의 인원이 필요하였으므로 복잡한 구성을 보인다. 일반관아에 비해 복잡한

구성을 보이는 監營에서는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監司制度를 비롯한 監營의 제반 제도가 완비되는 시기가 朝鮮後期이므로 本 研究에서는 朝鮮後期를 연구의 집중적인 대상시기로 잡았다. 또 監營의 職制別 相關性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中心軸의 構成을 중심으로 감영 계획방법론의 일부를 확인한다.

## 2. 監營의 構成과 變化過程 考察

### 2-1. 監營의 構成

監營의 構成은 크게 人的 構成과 物的 構成으로 대별되며 이는 職制와 建築的 構成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감영의 구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별성이 있지만 감영의 직제와 건축적 구성의 고정화가 이루어진 조선후기에 국한시켜 고찰한다. 監營의 人的 構成은 地方行政官 중 최상위 직제의 관원인 觀察使<sup>4)</sup>를 중심으로 이를 보좌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하는 外官으로 判官<sup>5)</sup>·都事<sup>6)</sup>.

4) 卞大燮, 「高麗 按察使考」(『高麗政治制度史 研究』), 一潮閣, 1974

관찰사는 監司, 方伯, 道伯, 道臣, 外憲, 道先生, 營門先生 등의 별칭을 갖는 것으로 高麗 按察使의 후신으로 이해되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監司로 용어를 통일한다. 觀察使란 원래 中國의 唐·宋代 外官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려 창왕 즉위년에 都觀察使로 통일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觀察使로 통일되었다.

監司의 임무 즉 기능은 外憲의 機能과 方伯의 機能으로 대별되는데 朝鮮前期의 行營體制에서는 6월과 12월에 모든 外官들의 치적을 평가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外憲의 機能이 강조되었으나 監司의 순력이 춘추 2회로 기간도 1개월 이내로 실시되는 등 점차 留營體制로 변하면서 方伯의 機能이 主 任務가 되었다. 監司의 方伯의 機能은 行政·司法·軍事的 機能으로 나누어 지고, 주된 기능인 行政의 기능은 勸農·救恤·試取(鄉試)·收稅·財政·기타 기능으로 구분된다.

5) 判官은 조선전기에는 道와 府·大都護府·牧과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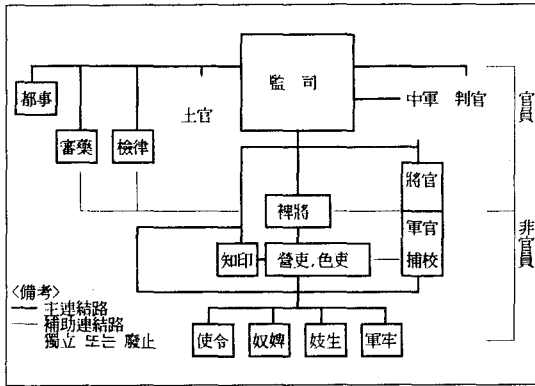
3) 崔榮喆·朴彥坤, 朝鮮後期 監營施設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66호, 1994.4.

崔榮喆, 職制를 中心으로 본 18世紀 監營의 空間構成에 나타난 相關性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72호, 1994.10.

———,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 博士論文, 1994.

孫禎陸, 일제강점기의 도청 이전-그 과정과 결과 (1), 서울시립대 논문집 18호, 1984.

표 1. 監營의 職制表



中軍<sup>7)</sup>·審藥<sup>8)</sup>·檢律<sup>9)</sup>·教授<sup>10)</sup>·訓導<sup>11)</sup>가 있다. 또 兩界地方에 국한된 관직으로 토착 양반으로 구성된 上官職이 있으며 정식 관원은 아니지만 監司의 秘書官으로 裨將<sup>12)</sup>이 있다. 이들 上部 職制를 보좌하여 監營의 실무를 담당한 집단으로 邑誌나 地理誌에는 營屬으로 표기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한 吏胥階層과 軍事·警察業務 등 武官職 업무를 담당한 軍校階層과 이들을 보좌한 최하층 실무자인 軍牢·使令·營奴婢 등으로 監營의 下部 職制를 구성하고 있다.

<표-1>과 같은 監營의 人的 構成이 朝鮮 初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감영의 행정적 성격상 監司를 정점으로 부속관원과 하부실무자로 이루어지는 감영의 기본적인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다. 또 監營의 物的 構成 즉 建築的 構成도 직제와 관련된 모든 시설이 조선 초부터 감영내에 조영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監司의 任務行態가 조선 초의 行營體制에서 점차 留營體制로 변화하면서 고정화된 감영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감영내에 많은 시설이 조영되었으므로 감영의 인적 구성이 곧 물적 구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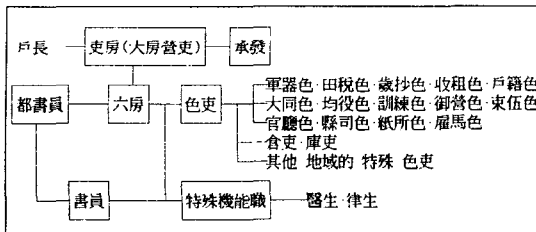
의 都護府 등 大邑에 설치되어 각각 監司와 守丞을 보좌하던 종5품관이었다. 조선후기에 判官이 설치된 지역이 公州·全州·大邱·濟州·海州·原州·咸興·鏡城 등 8개 읍이었다.

- 6) 도사는 종 5품관으로 조선전기에는 監司와 수령의 불법을 규찰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監司가 유고한 때에는 監司의 직임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권한이 약화되면서 18세기 후엽 이후에는 監營에 기속하는 한직으로 전락하여, 도사직에 임용되는 것을 꺼려 부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1882년(고종19)에 폐지되었다.
- 7) 중군은 監司의 친병인 순영속아병의 총지휘관으로 병조에서 추천 임명되어 군사사무를 관장하고 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병조에 보고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늦어도 1641년(인조19) 이전에 전국적으로 中軍이 설치되었던 것은 분명하며, 이때의 中軍은 監司가 자의로 임용하였다. 중군이 국왕의 낙점을 받아 차견되게 된 것은 1758년(영조34) 이후이다.
- 8) 예조에서 파견되었던 의료담당관으로 監營과 兵營, 그리고 濟州牧에 상주하였던 종9품관으로, 조선후기에 京畿道の 審藥이 혁파되고, 黃海道에 專任兵使가 설치되면서 審藥이 1명 배치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9) 刑曹에서 파견되었던 법률보좌관으로 監營과 濟州牧에 1명씩 파견된 종9품관으로서 조선 말까지 변화가 없었다.
- 10) 교수는 州·府에 두었던 鄉校의 長으로서 문과출신의 儒學教授官으로 품계는 6品 이상이었다. 건국 초부터 향교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태종 때부터 문과출신의 관인을 유학교수관으로 주·부에 파견하고 문과출신 교수관이 파견되지 못한 군·현에는 각도의 監司가 별도로 학장을 선출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법제적으로 정식화된 것은 『經國大典』이 완성된 성종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수직의 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續大典』에는 교수·훈도가 모두 감원되었고 한학훈도·외학훈도만이 남아 최소한 18세기 후반에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향교의 장은 그 지방의 향반 중에서 뽑아 향교의 강학을 담당케 하였다.
- 11) 훈도는 교수와 마찬가지로 향교의 장으로 비교적 작은 읍인 군·현에 파견된 7품 이하의 문과출신 유학교수관이며 일반적으로 종9품관으로 변화과정은 전술한 바와 같다.
- 12) 비장은 국사학 분야에서도 완전한 정의를 유보하고 있으나 啓請軍官이라고도 호칭되었으며, 국왕에게 계청하여 임용하였던 군관으로 監司의 비서관이었다. 裨將에 관한 기록은 16세기 말부터 나타나는데, 각 도 裨將의 수는 8-10명으로

2-2. 監營의 變化過程

감영의 변화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점이 行政的인 制度和 實際 制度의 일치여부이다. 朝鮮王朝는 조선 초부터 지방행정 체제를 8도로 나누고 각 도의 首領官으로서 監司를 파견하였으며 이를 보좌하기 위한 부속관원과 하부실무자로 구성된 직제가 확인되지만 이들이 업무를 관장한 監營이 實在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특히 조선 초의 경우 감사의 임무행태가 감영이라는 고정된 관아에 머물면서 道內業務를 관장하는 留營體制가 아니라 해당 도의 각 읍을 순시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었던 巡歷體制였으므로 감영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감사의 임무행태가 감영이라는 일정 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한 시기부터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 감영이 조영되었으며 그 시기는 監司制度의 고정과 관련이 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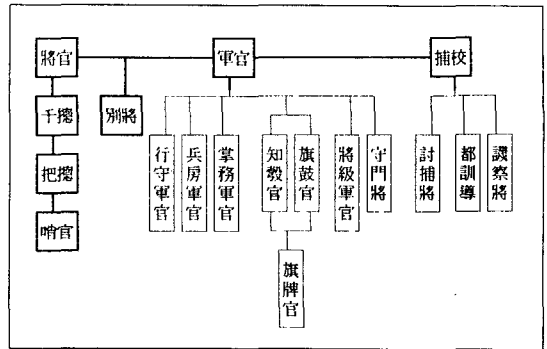
표 2. 吏胥職의 職制 相關圖



朝鮮後期 監營의 직제변화 중 하나는 監營의 직제가 17세기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법전적 직제와 실제 직제의 유리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監營의 직제 확대현상은 새로운 직제의 발생과 하부실무자 직제의 세분화에 따른 업무와 인원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직제 확대는 監營의 시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17세기에는 中軍과 裨將이 새로이 監營의 직제에 포함되었으며, 監司의 任務行態가 留營體制로 변하면서 判官은 별도의 집무공간인 邑衙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六房을 각각 담당한 裨將이 있었기 때문에 타 보좌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표 3. 軍官職의 職制 相關圖



監營밖으로 독립되었으며, 이보다 앞선 시기에 하부실무자 중 행정적인 營吏들의 직제가 六房體制로 변하였다.<sup>14)</sup> 또 18세기 중엽의 기록인 『輿地圖書』에서는 監司領域의 施設名과 構成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고정된 반면 하부실무자의 시설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직제명이 곧 시설명이 되었으나 19세기의 邑誌에 나타난 기록을 분석한 결과 都事職이 閑職化되면서 都事의 집무소가 監營밖 또는 監營내의 외곽으로 이전되었고, 監司의 영역 내에 많은 亭子가 조영되어 監司의 영역이

13)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pp.37-49와 李存熙,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 一志社, 1990, pp.86-108.

감영의 실제적인 조영 필요성이 나타난 시기는 감사의 임기가 2년으로 고정되면서 가족과 하인 즉 권솔을 데리고 부임하면서 해당 읍의 수령을 감사가 겸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고정된 시기를 의미한다. 양계지방을 제외한 이남 6도의 경우 1448년(세종30)까지 감사의 임기 1년에 단신도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1454년(단종2) 7월까지 임기 30朔에 겸목하도록 변하였으나 다시 임기 1년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수차 논의를 통해 변화가 있었으며 1669년(현종10)에 이르러 삼남 감사의 슬권부임이 법제화되었고 1759년 이후 경기감영을 제외하고 동일한 도제를 갖게되었다.

14) 吏胥職의 職制表는 김필동, 『조선후기 지방이서 집단의 조직구조』, 『韓國史論』 28·29호, 1982, 일지사, pp. 106-108.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였고, 軍官職의 職制表는 閔善姬, 『朝鮮後期 東來의 鄉班社會와 武廳』, 『歷史學報』 139집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표 4. 監營處의 變化過程

| 監營處의 變化過程 |            |    |            |            |            |            |                   |            |            |            |            |            |
|-----------|------------|----|------------|------------|------------|------------|-------------------|------------|------------|------------|------------|------------|
| 京畿監營      | 京營         | 수원 | 광주         | 한성         |            |            |                   |            |            |            |            | 수원<br>1886 |
|           | 新營         |    |            |            |            |            |                   |            |            |            |            | 영평<br>1618 |
| 平安監營      | 평양<br>1413 |    |            |            |            |            |                   |            |            |            |            |            |
| 咸鏡監營      | 함흥<br>1416 |    |            | 영흥<br>1470 |            | 함흥<br>1473 |                   |            |            |            |            |            |
| 黃海監營      | 황주         | 풍천 | 해주<br>1395 | 황주<br>1449 |            |            |                   | 해주<br>1601 |            |            |            |            |
| 忠清監營      | 청주<br>1395 |    | 충주<br>1449 |            |            |            | 공주<br>1602        |            |            |            |            |            |
| 江原監營      | 원주<br>1395 |    |            |            |            |            |                   |            |            |            |            |            |
| 全羅監營      | 전주<br>1395 |    |            |            |            |            |                   |            |            |            |            |            |
| 慶尙監營      | 左道         | 경주 |            | 상주         | 경주<br>1519 | 경주<br>1592 | 성주<br>팔거현<br>1593 | 경주1<br>595 | 달성<br>1596 | 경주<br>1597 | 안동<br>1599 | 대구<br>1601 |
|           | 右道         |    | 상주<br>1407 | 세종 초       | 상주<br>1519 |            | 상주<br>1595        | 상주<br>1597 |            |            |            |            |

확대되었다. 하부실무자의 시설명이 지역마다 차별성이 보이는 독자적인 명칭으로 호칭되었고, 일부 시설은 監營 주위에 배치되면서 監營의 틀이 내·외부적으로 확대되면서 18세기까지의 틀이 해체되는 현상을 보인다.<sup>15)</sup>

따라서 이러한 감영시설의 고정화는 감영처의 위치변화와 감영처 내에서 감영의 위치변화가 전국적으로 고정화된 시기가 늦어도 18세기 초이므로 17세기에는 전국적으로 감영처에 감사의 집무관아로서의 감영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도의 경우 左·右道로 분리와 합병이 계속되었고, 京畿·咸鏡·黃海·忠清監營의 경우 監營處의 위치가 변화를 보였다.

17세기 초에 감영처의 전국적인 고정이 이루어졌지만 이 이후에도 일부 감영의 경우 감영처 내에서 감영의 위치변화가 이루어졌다. 감영처 내에서 감영의 위치가 변한 감영<sup>16)</sup>은 咸鏡·江原·平安

忠清監營으로 감영처 내에서 감영 위치의 고정이 늦어도 18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文獻<sup>17)</sup>과 가시적인 史料<sup>18)</sup>

16) 咸鏡監營의 경우 1473년에 咸興府로 환원되면서 원 위치에서 서남쪽으로 옮겼다가 1665년에 최초의 장소로 이동하여 고정되었으며, 江原監營의 경우 1634년에 客舍를 원래 위치로 옮기고 객사가 있던 장소로 監營을 옮긴 것이 1665년이 었다. 平安監營의 경우 1646년 中營터로 옮겼다가 1694년 平壤府의 북쪽으로 감영을 옮겨 고정되었으며 감영의 위치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忠清監營의 경우 1602년 雙樹山城→1604년 邑內→1645년 雙樹山城→1646년 公山城 內→1653년 邑內로 환원→1706년 鳳凰山 아래로 고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17) 朝鮮前期 監營의 직제에 관련된 기록으로는 법전류로는 『經國大典』, 지리지로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일부가 기술되어 있으며, 1590년에 尹斗壽가 撰한 『平壤誌』가 유일하고, 참고자료로서 16세기 全羅監司의 제수과정과 행렬을 묘사한 柳希春의 『眉巖日記草』가 있다. 17세기 후반의 사료인 『磻溪隨錄』에는 당시 지방직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규범화된 직제를 주장하고

15) 崔榮喆, 職制를 中心으로 본 18世紀 監營의 空間構成에 나타난 相關性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72호, 1994.10. 參考

도 이 시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 3. 朝鮮後期 監營 中心軸의 構成과 職制別 相關性

#### 3-1. 監營의 立地와 配置構成

전술한 바와같이 17世紀 初에 監營處의 전국적인 고정이 이루어졌으며 監營의 職制變化와 더불어 監營處 내에서 監營의 위치가 전국적으로 고정된 18世紀 初 이후에는 감영처 내에 감영을 비롯하여 客舍, 判官의 독립된 업무시설인 邑衙<sup>19)</sup>와 일부 지역에서는 감사의 군사 보좌관인 中軍의 官衙인 中營이 독립되는 등 복잡한 도시구성을 보인다.<sup>20)</sup>

監營處의 立地는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道內에서의 位置와 전국적인 중심도로망과의 관계 그리고 監營處와 주변 邑과의 연결 관계 등을 통해 監營處의 지역적 특성과 변화가 갖는 의미가 확인된다. 朝鮮時代의 道路網은 漢城府를 중심으로 X字 形式의 기본 도로망을 중심으로 9개의 大幹線路로 구성되어 있었으며<sup>21)</sup>, 교통로와 관련하여 41개의 驛道로 나뉘어져 있었다. 22) 41개로 구획된 驛道는 각자의 명칭을 갖고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驛道間의 연결이 달라지게 되어 전국적인 중심도로망도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各道의 中心都市 즉 監營處의 位置變化가 주된 이유였으므로 監營處의 位置는 도로망의 변화에 까지 작용하였다. 감영처의 위치

있다. 朝鮮後期 監營의 職制에 관한 기록은 1730년에 기록한 『平壤續誌』, 『輿地圖書』 그리고 1830년대 이후의 읍지에 나타난다. 『平壤續誌』는 平安監營에 국한된 기록이고 『輿地圖書』의 경우 京畿·全羅監營만이 제외되었다. 朝鮮後期 監營에 관한 가지적인 사료인 邑誌는 대부분 년대미상이거나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高宗 때 이루어진 것이다.

는 朝鮮 初에는 各道의 大邑인 동시에 漢城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17世紀 初에 감영처가 고정된 지역은 道內 邑과의 連繫性을 고려하여 道內의 中心地에 설치되었다.

먼저 監營處의 規模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差別性이 나타나는데,<sup>23)</sup> 朝鮮前期의 기록에 의하면 原州牧의 경우 邑城이 없었고, 大邱都護府는 壬辰倭亂 이후에 土城을 新築하였으므로 제외하면 全州府 2,618尺·海州牧 10,971尺·平壤府 24,539尺·咸興府 4,633尺·公州牧 4,850尺으로 나타나며<sup>24)</sup>, 朝鮮後期의 기록인 『輿地圖書』에는 全州府(5,356尺×8尺)<sup>25)</sup>·大邱都護府(2,124步×22尺)<sup>26)</sup>·海州牧(13,1

- 18) 가지적인 사료로서는 『京畿監營圖』, 『箕城圖』, 『箕城全圖』, 『關西八景圖』를 비롯하여 각 읍지에 나타나는 그림과 지도 그리고 일제 때의 감영 사진이 있다.
- 19) 감영을 上衙라 지칭하고 읍아를 貳衙로 지칭하기도 하고 判官衙라고 명한 곳도 있다.
- 20) 崔榮喆·朴彥坤, 朝鮮後期 監營施設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66호, 1994.4.를 參照.
- 21) 崔永俊, 『嶺南大路』,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pp. 129-131. 朝鮮時代의 驛制를 1기(1392-1456)·2기(1457-1592)·3기(1593-1893)·4기(1894-1913)로 나누고 있다.
- 22) 崔永俊, 上揭書, p.144. 하나의 驛道는 보통 7-8개의 軍현을 묶어 管轄 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조선 초에는 전국을 44개의 역도로 나누었다가 세종대에는 41개로 조정하여 한말까지 변화가 없었다.
- 23) 李相楮, 『朝鮮時代 邑城에 關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3.의 부록면 각도 읍성의 비교표 참고.
- 24) 孫禎睦 『日帝強占期 都市計劃研究』, 일지사, 1990, p.83 의 표2 참고.
- 25) 全州府의 경우 『增補文獻備考』와 『全羅觀察使營誌』에는 2,618보로 기술되어 있어 규모의 차이가 난다. 최근의 연구 중 張明洙, 『城郭發達과 都市計劃 研究』, 學研文化社, 1994, pp.41-57에 따르면 현 시가지와 비교를 통해 1734년 조현명에 의해 증축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1보를 6척으로 계산하면 15,708척에 해당하므로 감영처의 규모는 평안감영이 있었던 평양부를 제외하면 유사한 규모였음이 확인된다.

20尺<sup>27)</sup>·平壤府(28,800尺×3丈)·咸興府(12,659尺×2丈1尺)으로 나타난다. 이는 監營處의 規模가 시기가 내려올수록 확대되었고, 道內 他 邑에 비해 큰 규모였으므로 監營處가 規模面에 있어서도 該當道에서 가장 큰 邑이었다.<sup>28)</sup> 또 監營處의 形狀은 同一 邑이라도 古地圖에 나타난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抹角方形을 기본으로 타원형의 형상을 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兩界 地方의 監營處는 不定形의 形狀을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상을 취하고 있지 않다.<sup>29)</sup>

邑內의 中心道路網은 지역에 따라 차별성이 있으나 監營處가 道內에서 갖는 중심적인 위치와 주변 邑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十字型 道路網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에 따라 더 세분화 되거나 T字型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邑城이 4 大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邑內의 道路網은 十字型이 基本이지만 監營處의 지형적인 특성이나 邑內 官營施設의 配置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監營處 內의 道路網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監營處의 성격상 十字型이 基本이 되었으며, 주변 邑과의 연결로를 중심으로 邑의 지형적 조건에 맞추어 T字型의 모습을 한 지역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官營施設이 새로이 건립됨으로 인해 十字型의 틀이 깨어져 T字型 道路網을 갖추게 되기도 한다.<sup>30)</sup>

監營의 立地는 邑城 內에서 북쪽에 자리한 경우가 많으나 中心道路邊에 위치한 대지 중에서 산이나 언덕을 뒤에 두고 있으며 넓은 대지를 구성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方位의 次序體系와는 큰 관련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1694년에 監營의 위치가 고정된 平安監營의 立地와 1706년에 監營의 位置固定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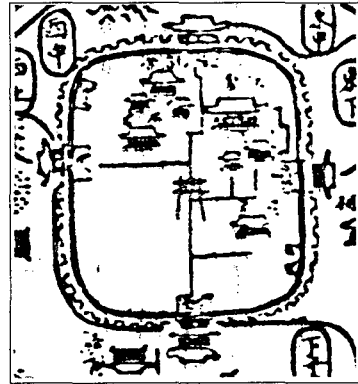


그림 1. 大邱都護府 地圖

이루어진 忠淸監營의 立地過程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監營의 立地를 위해서는 方位의 次序體系보다는 必要施設의 收容이 가능한 대지면적이 立地選定의 우선 조건이었으며, 背山과 邑內 中心道路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風水 등 傳統的인 配置方式에 적합한 立地를 택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sup>31)</sup>

27) 『海東地圖』에 따르면 성의 길이는 4,733척으로 되어 있고, 民戶는 14,519내로 남자 26,346명, 여자 22,7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8) 李相楛, 前揭論文의 附錄과 孫禎睦의 前揭書 p.83의 표 2參考

29) 崔榮喆, 朴彥坤의 前揭論文 p.87의 그림 參照

30) 十字型에 해당되는 監營處는 全州府·大邱都護府이며 平壤府의 경우 十字型을 基本으로 일부 中心道路가 더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咸興府·海州牧·公州牧의 경우 T字型을 基本으로 하고 있으며 原州牧의 경우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나 T字型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朝鮮後期를 기본으로 하여 監營處 內의 中心道路網을 살펴본 결과 T字型이 많이 나타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十字型에 속한 것이므로 監營處의 中心道路網은 十字型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들 읍 내 중심도로망을 중심으로 監營의 立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平安監營·咸鏡監營·江原監營(西北)·黃海監營(西北)·慶尙監營(東北)의 5개처, 남서쪽에 자리한 것이 忠淸監營·全羅監營의 2개처로 분석된다.

31) 監營處 內에서 監營의 位置는 絶對 配置領域이

26) 『대구시사』, pp.246-252. 參考.

대구도호부의 경우 원래 1591년에 완공한 토성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다가 1736년(영조 12) 1월 8일에 가서야 체성을 시작하여 4일 후인 12일에 개기하였고, 체성은 동년 4월 25일, 여침은 동년 6월 6일에 완성된 것이다. 이후 1870년(고종 7)에 대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2,680보로 증축되었다.



그림 2. 平安監營의 移動圖

監營處 內에는 監營施設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官營施設이 있었으므로 이들의 配置와 相互關係를 통해 監營處 內에서 監營이 갖는 配置構成技法의 일부에 대한 더욱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임금의 關牌를 모신 客舍와 監營의 位置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客舍와 병열되어 자리한 것이 黃海監營·江原監營·慶尙監營의 3個處, 全羅監營은 客舍의 남서쪽, 忠淸監營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兩界地方의 監營은 客舍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또 客舍와 監營을 거리의 遠近關係로 살펴보면 兩界地方의 監營과 以南 5道 監營으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sup>32)</sup>

判官衙는 대부분 監營과 인접해 있으며 監營處의 전체 배치구성상 대립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監營處의 규모가 큰 兩界地方에서는 監營의 앞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자리하고 있다. 監營의 設置 이전에 이미 既存 邑衙가 갖추어졌으므로 客舍와는 인접해 있다.<sup>33)</sup> 또 中營은 首長인 中軍의 執務領域으로, 두 가지 配置構成技

없었으며, 邑內에서 대규모 監營施設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대지를 택하였고, 監營의 配置領域은 背山이 가능한 언덕이나 산을 포함하여 中心道路와 면한 지역까지를 포함한 넓은 대지였다.

法을 보인다. 하나는 監營의 領域 內에 中營이 설치되는 경우와 監營의 領域 外에 독립적인 官營施設을 갖추어 監營에서 독립된 경우로 나뉜다.<sup>34)</sup>

朝鮮後期 監營은 立地條件과 관련하여 넓은 대지조건을 갖춘 곳에 입지하였으므로 宮闕을 비롯한 대부분 관영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요시설의 주위를 담장과 行廊으로 구획하고 全體進入路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진입로가 각각의 시설을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格子型의 配置構成을 기본으로 세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配置方式을 보이고 있다. 또 配置構成方式上의 特性은 正門에서 監司의 政廳으로 이어지는 進入空間과 監司의 領域이 邑內 中心道路와 背山의 領域까지 연결되는 中心軸

32) 以南 5道 監營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兩界地方의 監營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거리의 遠近關係만을 따지면 以南 5道 地方의 監營은 客舍와 강한 相關性을 보이는 반면에 兩界地方의 監營은 相關性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兩界監營의 경우 客舍에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대지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客舍와 상당한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리상의 차이는 監營處의 地域的 差別性과 建立時期와도 연관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客舍와 인접해 있으며 강한 相關性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33) 李相楛, 前揭論文 參考.

34) 監營 內에 설치된 경우는 全羅監營의 경우가 유일하고 中軍의 設置時期과 관련하여 17世紀 初에 監營의 位置가 고정되었던 黃海·江原·慶尙監營의 경우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있지만 監營과 인접하여 있다. 이보다 늦은 시기에 監營의 위치가 고정된 平安·忠淸監營의 경우 監營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다. 두 監營 모두 한차례 이상 中營 자리에서 監營이 설치된 사실과 平安監營의 경우 其他 官營施設도 독립된 영역을 구성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거리의 차이는 있었지만 監營과 中營의 相關性은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이들 두 지역이 18世紀를 전후하여 監營의 位置가 고정되었으므로 中營의 독립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中營의 경우 邑衙와는 달리 監營과의 相關性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점차 독립된 영역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咸興府 地圖의 咸鏡監營

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中心軸을 중심으로 직제와 관련되어 세부적으로 유사한 업무와 관련된 施設이 領域別로 建築群을 형성하고 있다.

八道監營의 配置構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많은 施設이 배치되어 복잡한 구성을 보이지만 領域別로 구획되는 配置構成을 보이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시설 상호간의 業務別 相關性에 따라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지는 영역은 읍내의 중심도로로부터 監營의 政廳인 宣化堂으로 연결되는 進入空間,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監營內에서 가장 큰 영역을 형성하는 宣化堂을 중심으로 하여 後園의 모든 施設을 포함한 監司의 領域이 監營의 全體配置構成에 있어서 中心軸을 형성하고 있다. 이 中心軸을 중심으로 監司의 領域과 인접하여 監司의 業務나 生活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하부실무자의 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倉庫施設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領域을 형성하여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부속관원의 영역은 직제의 변화나 시대적인 차별성은 있으나 별도의 집무시설을 갖추어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또 監司의 秘書官으로서 裨將의 집무시설은 監司

領域內의 冊室과 별도로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는 裨將廳으로 大別되며 裨將廳을 중심으로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布政門을 중심으로 營吏廳 등 外務 營吏의 施設과 軍校職의 施設과 이와 관련된 倉庫 등의 시설이 영역을 이루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職制의 相關性에 따른 領域別 配置構成을 이루고 있다.

또 監營內 施設의 坐向은 대부분 政廳인 宣化堂의 坐向을 따라 南向을 선호하고 있으며<sup>35)</sup> 進入方式은 前述한 配置構成의 分析에서 正門인 布政門에서 宣化堂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監司의 領域으로 이르는 進入空間이 主進入方式이었으며, 세부 시설별로 별도의 진입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석된다. 主進入方式은 直線型和 ㄴ字로 꺾이는 屈折型의 두 가지 형식을 보인다.<sup>36)</sup> 또 補助 進入方式은 個別 施設의 위치에 따라 구별되지만 主進入空間에서 이들 시설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능한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시설은 監營밖에서 직접 進入이 가능하도록 主進入 이외에 별도의 出入口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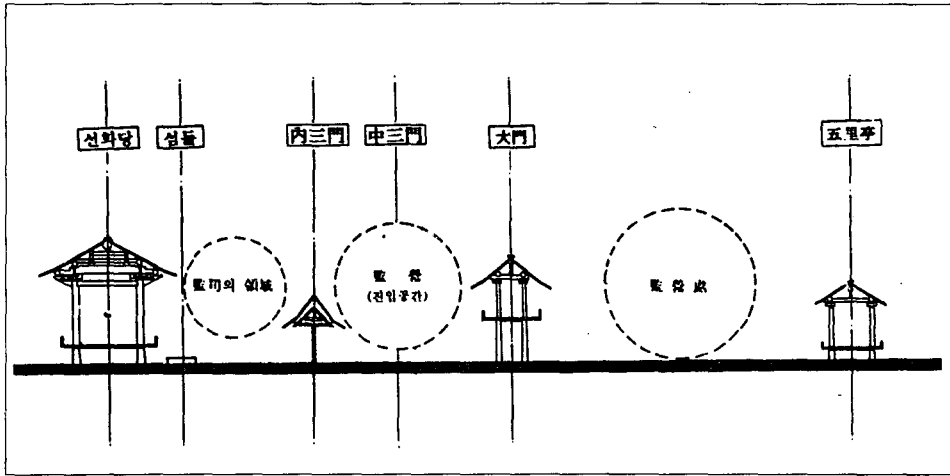


그림 5. 官員의 迎接에 따른 監營의 領域 構成

며 2단계는 布政門을 중심으로 한 進入空間, 3단계가 宣化堂을 중심으로 한 監司의 영역으로 官品에 따라 차별적인 迎接行爲가 禮制에 기술되어 있어 官衙의 構成에서 正門을 중심으로 한 進入空間과 政廳을 중심으로 한 영역의 形成은 공통적인 構成要素였으며 官衙의 格에 따라 細部的인 差別性이 나타난다. 따라서 法典과 相關하여 監營의 中心軸 構成이 최소한 2門의 進入空間과 넓은 基壇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일반 地方官衙의 進入空間의 構成은 2門構成을 基本으로 하였다. 일부 兩界地方의 官衙 中 進入空間의 3門構成이 확인되지만 넓은 垆地條件과 人口數의 상대적 축소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獨立性 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地方官衙에는 外三門 밖에 홍살문이 있으므로 홍살문을 進入空間에 포함시키면 일반 地方官衙도 3門構成을 이룬다.<sup>38)</sup> 朝鮮時代 地方官衙 進入空間의 構成은 法典에 나온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2門構成이 基本形式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外三門 앞에 놓인 홍살문의 존재를 포함시켜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3門構成을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監營의 경우 進入空間의 3門構成이 平安監營을 제외하고 모든 監營에서 확인되므로 監營의 進入

空間은 地方官衙의 進入空間에 비해 격이 높은 사실이 확인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朝鮮時代 法典이 나타난 迎接規定이 3段階로 이루어졌으므로 監營의 경우 一般 地方官衙와는 달리 道內 最上位 官衙였으므로 五里亭의 存在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進入空間의 3門構成이 恣意的 解析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道伯으로서 監司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宮闕과 유사한 형식으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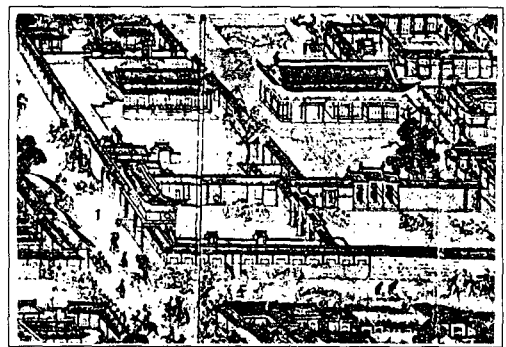


그림 6. 『京畿監營圖』의 進入空間

38) 李炯圭, 『朝鮮時代 東軒建築의 構成形式에 관한 研究』, 弘益大 碩士論文, 1993, p.58의 <그림 4-3> 參考.

39) 宮闕의 3門3朝 構成은 寢殿까지를 포함한 宮闕 全體 配置構成法에 해당하지만 進入空間에서의 3門構成은 現存 遺構에서 확인되므로 監營의 3門構成은 宮闕의 進入空間構成法에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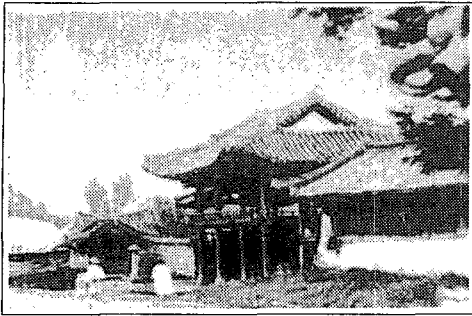


사진 1. 全羅監營의 布政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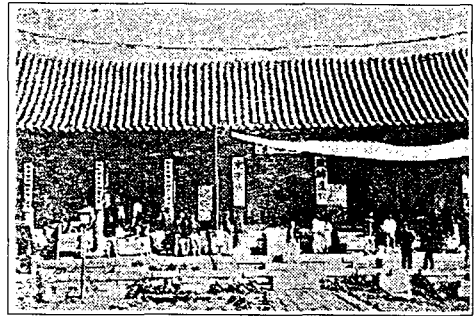


사진 2. 平安監營의 宣化堂

監營에서의 進入空間 內에는 宮闕과 같은 明堂 水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門과 甬廊 이외에는 아무런 여타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進入空間은 엄격한 격식을 갖춘 儀式空間이며 시설물의 격에 따라 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일부 監營의 進入空間에는 전돌을 사용하여 宮闕의 三道와 같은 통행로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地方官衙에는 그 예가 나타나지 않아 進入空間의 構成은 位階에 따른 차별적인 구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進入空間에서 나타나는 官營建築의 차별적인 공간구성을 위계에 따라 구분하면 宮闕의 3門構成은 正門의 경우 重層門·中三門(3門)·內三門(3門)으로 구성되며, 行宮의 경우 正門의 重層樓·中三門·內三門(3門)形式을 취하고 監營의 경우 行宮과 동일한 형식이지만 中·內三門은 솟을3문형식이고, 東軒의 경우 正門인 外三門은 重層樓, 內三門은 솟을3문형식으로 差別性이 나타난다.

## 2) 政廳領域

監營의 政廳은 宣化堂으로서 18세기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이 확인되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宣化堂은 監營의 모든 중요 행사와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進入空間과 직접 연결되어 內三門을 통해 宣化堂에 이르게 된다. 宣化堂은 內三門 左右에서 시작하여 宣化堂의 3면을 둘러싸는 行廊으로 공간이 구성되었으므로 宮闕의 正殿과 유사한 공간구성을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政廳의 前面 섬돌까지의 공간은 행사가 거행되는 儀式空間이었으므로 기단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나지만 宮闕과 行宮의 경우 의식이 행해질 수 있는 규모를 갖출데 비해 監營과 東軒의 경우 일정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행사가 政廳의 섬돌 아래 앞마당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 특히 宣化堂의 앞마당 좌우에 배치된 嘉石과 肺石의 존재<sup>41)</sup>는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따라서 기단의 넓이는 행사와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기단 또한 의식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宮闕의 正殿이 행사만을 주관하였으므로 正殿 內部에 房의 존재가 필요치 않았고 外部空間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바닥에 전돌을 간데 비해 宣化堂의 內部空間은 大廳과 房 그리고 室로 구성되는 차이를 보인다. 더구나 宮闕에서 행사 주관이 아니라 업무관장을 위한 시설은 便殿이었으므로 宣化堂의 機能은 便殿의 機能과 寢殿의 機能까지를 복합한 內部構成을 보인다. 특히 監營에서는 宣化堂 외에 澄清閣이라는 監司의 處所가 따로 있었으므로 監營에서의 宣化堂은 寢殿의 機能은 축소된 형식으로 東軒과의 差別性이 나타난다.

40) 李炯圭, 前揭論文, p.40 참고.

41) 마당에서 政廳을 향해 왼쪽에 폐석, 오른쪽에 가석을 놓았으며 그 의미는 『周禮』秋官誌, 大司寇 參考. 폐석은 힘없는 백성(窮民)이 조정에 고소할 때 앉혔던 붉은 돌이며, 가석은 경범죄자를 개전시키는데 사용한 일종의 文石으로 가석 앞에 앉혀 거기에 새겨놓은 글을 보고 개전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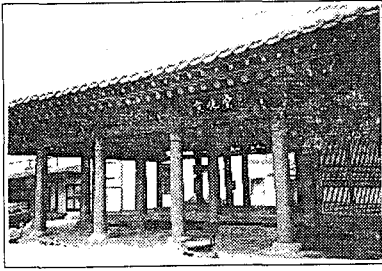


사진 3. 江原監營 宣化堂의 外陳部分

監司處所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지 않는 1590년 대에 찬한 『平壤誌』에는 宣化堂을 監司의 政廳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에 기술된 내용과 비교하면 宣化堂의 일부 內部空間의 構成特性이 확인된다. 『平壤誌』에는 上房2間·廳屋3間·前後楹各5間·西別室7間·北別室6間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옆과 前面에 行廊이 가설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기록만으로 宣化堂을 구성하면 前後楹 各5間은 바닥이 基壇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하나의 해석으로는 이 부분까지 마루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江原監營 宣化堂의 경우 基壇의 바닥과 연결되어 전돌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전돌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42)</sup>

42) 上房 2칸은 廳屋 3칸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西別室은 宣化堂의 서쪽, 北別室은 북쪽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廳屋 3칸과 上房 2칸을 중심으로 廳屋과 西別室, 上房과 北別室이 연결되며, 後楹 5칸은 前楹과 마찬가지로 基壇面과 水平面을 이루는 전돌바닥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監營 內에서 방은 監司의 處所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室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마루바닥으로 구성되어 행사시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平壤誌』에 나타난 平安監營 政廳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京畿監營의 宣化堂과 유사하지만 규모면에서 동측의 4칸이 줄어들고 外陳부분의 바닥은 基壇과 동일한 전돌 구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平壤誌』 『京畿監營圖』 그리고 現存 遺構 3棟을 분석한 결과 좌측 즉 東上房의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의 규모는 2칸~4칸으로 구성되고 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들장지를 통해 연결되

宣化堂 內部는 宮闕의 正殿이나 便殿과는 달리 內部가 房·室·大廳으로 구획되며 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은 들장지로 구획하여 행사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東軒에 비해 上房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東軒과 유사한 內部空間構成을 하고 있다. 따라서 監營의 宣化堂은 宮闕의 正殿·便殿과는 上房의 存在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澄清閣이라는 監司處所의 존재로 인해 守令의 處所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地方官衙에 비해 上房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進入空間과 동일한 位階에 따른 差別性이 확인된다. 政廳領域은 宣化堂 뿐만 아니라 監司의 처소인 澄清閣과 이를 보좌한 일부 裨將의 집무공간인 冊室이 있고, 監司 가족의 주거인 內衙·後園과 이곳에 조영된 亭子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祠堂의 존재도 확인된다.

### 3-3. 中心軸의 職制別 相關性

朝鮮後期 監營은 布政門·中三門·內三門·宣化堂·澄清閣·內衙·後園으로 구성된 영역이 監營의 正門에서 後園 뒤 監營의 담까지를 포함하여 監營의 中心軸을 형성하며 固定性을 보인다. 監營의 中心軸을 중심으로 대청적으로 職制別 相關性에 따라 관련된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進入空間에 연접한 宣化堂을 비롯한 監司의 영역은 背面을 제외한 三面에 行廊을 들렀으며, 監司의 處所인 澄清閣과 연접해 있으며, 그 사이에 監司의 秘書官인 裨將의 執務所 중 하나인 冊室이 인접해 있고, 內衙와 연결된다. 內衙의 뒤는 後園으로 蓮池를 파고 亭子를 조영하였으며, 일부 祠堂의 존재도 확인된다.

附屬官員의 領域은 宣化堂을 중심으로 澄清閣의 위치와 대청적인 장소에 배치되며, 都事·審藥·檢律의 執務空間이 집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都

므로 大廳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머름대가 구성된 上房의 존재를 제외하면 모든 內部空間이 通間形式으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全羅監營의 職制別 相關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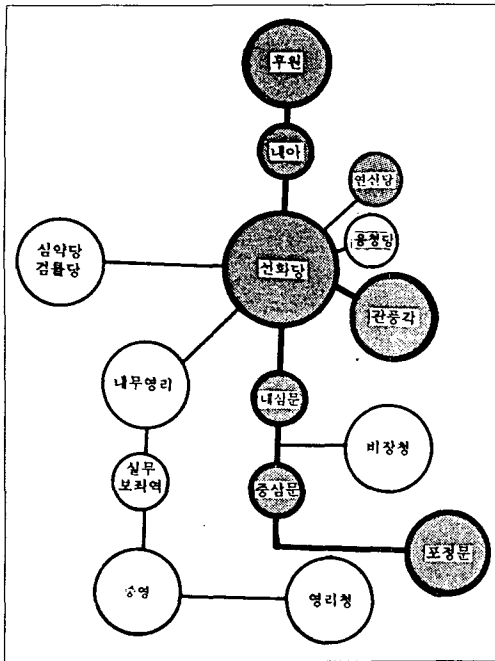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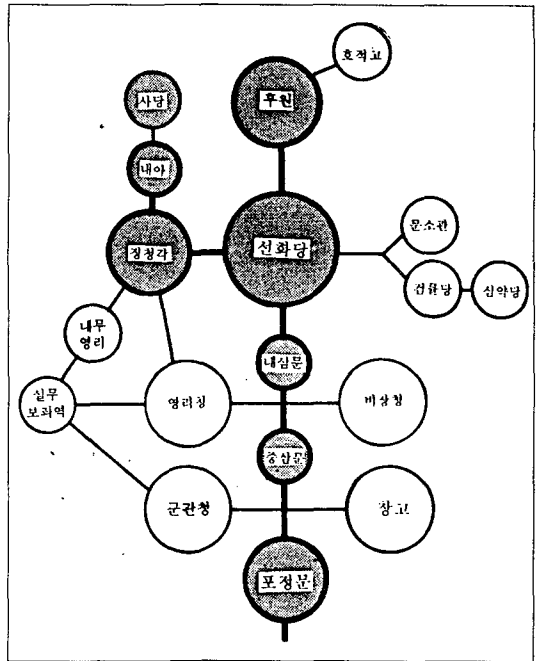


표 6. 咸鏡監營의 職制別 相關圖



事の 閑職化로 都事の 執務所가 監營 밖 또는 없 어지는 時期別 相關性을 고려할 때 審藥과 檢律 의 執務空間은 인접하여 監營 內에서도 외곽에 배치되었다. 裨將廳은 中心軸의 進入空間을 중심 으로 中三門과 內三門 사이의 영역에 배치되어 下部實務者와 附屬官員의 中間領域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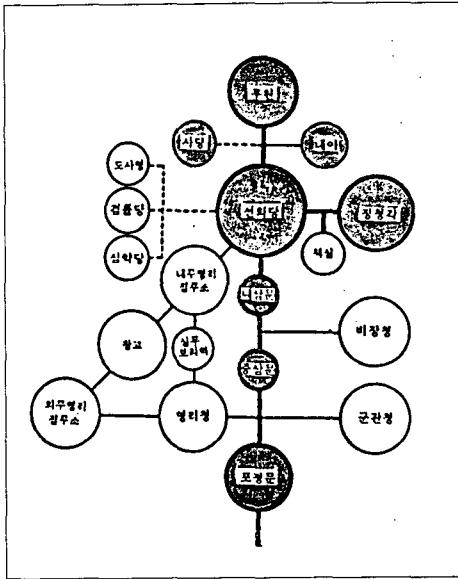
下部實務者의 核心職制인 營吏執事·軍官의 執 務空間을 비롯하여 監營의 外務를 담당한 營吏의 執務空間은 布政門과 中三門 사이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업무의 성격과 강한 相關性을 보인다. 三公兄을 구성한 吏房·戶房·刑房 또는 承發의 執 務所가 핵심시설이었으며 武官職 下部實務者 시 설의 중심은 軍官廳과 執事廳으로 武官職 下部實 務者의 관련시설과 함께 배치되며 軍器庫를 비롯 한 倉庫와 軍牢 등 皂隸·羅將의 處所와 相關性이 강하다. 內務營吏의 執務空間은 宣化堂 근처에 집 중되어 배치되어 있으므로 監司의 生活과 監營 內의 운영과 관련된 業務와의 相關性이 강하게 나타난다.

倉庫施設은 官장업무와 物품의 종류에 따라 차

별적인 배치구성을 보이며 가장 중요한 창고로 인식되었던 戶籍庫는 監司의 영역에 인접되거나 監司의 영역 內에 배치되는 유일한 창고시설이다. 監司의 監營內 生活과 직결되는 營廳·營庫는 監司 의 영역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厩馬庫·軍器庫 등 軍事·警察·交通關聯 施設은 布政門 근처에, 倉庫는 업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배치된다.

가시적인 史料를 통해 八道監營의 配置構成을 분석한 결과 職制의 位階와 職制別 相關性이 中心軸을 중심으로 정연한 배치구성을 보이는 監營 은 全羅監營·咸鏡監營으로 나타났다. 全羅監營은 타 監營과는 달리 中營이 監營 內에 배치되었으 며 19世紀에 나타난 해체적인 경향이 일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배치구성에 있어서 規律 적인 배치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咸鏡監營은 下部 實務者의 職制와 相關性이 일부 미약하게 나타나 지만 附屬官員의 執務所가 宣化堂 근처에 집중되 어 上部職制의 職制別 相關性이 강하게 나타난다. 19世紀 解體期의 特性을 보여주는 江原監營은 審 藥堂·營奴房·教坊이 監營의 밖에 배치되어 해체기

표 7. 職制別 相關性에 따른 監營의 配置概念圖



의 특성을 보여준다. 平安京畿監營은 지역적인 差別性을 강하게 表출하는 監營으로 平安監營은 八道監營 중 가장 규모가 큰 監營으로 職制別 相關性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며 가장 작은 규모인 京畿監營은 職制別 相關性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朝鮮後期 監營 中心軸의 構成은 職制와 的 相關性이 강하게 表출되어 時期別 差別性과 地域的 差別性이 나타나는 下部實務者의 시설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8세기의 고정화된 배치구성방식이 지켜진 監營은 全羅監營과 咸鏡監營으로 朝鮮時代 監營 配置構成의 規범적인 모습을 보인다.

#### 4. 結論

朝鮮前期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은 兩界地方 이외에는 巡歷體制였으므로 監營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監營의 建築的 構成과 職制의 相關性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17世紀는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이 定着된 시기로 監營은 職制·監營處·監營의 位置가 고정되었으며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이 강하게 나타나 職制와 施設의 일치현상이 나타났다. 18世紀는 職制의 變換이 이루어진데 반해 建築的 構成의 固定化가 이루어진 시기로 監營의 施設名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나타났다. 進入空間과 監司의 領域은 고정화되는데 반해 하부실무자의 직제에 있어서 새로운 직제의 편제와 인원수의 증가로 인해 監營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世紀는 監營의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建築的 構成의 解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布政門·中三門·內三門의 3門으로 구성된 進入空間과 宣化堂을 중심으로 한 監司 領域과 後園領域이 監營의 중심축을 형성하여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직제별 상관성에 따라 시설이 배치되었다. 布政門과 中三門의 사이에는 營吏·軍官·捕校의 집무시설을 중심으로 外務營吏와 軍校職 집무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며, 內務營吏의 집무시설은 監司의 영역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裨將廳은 中三門과 內三門 사이에 배치되며 宣化堂 근처에 冊室이라는 별도의 집무공간을 형성하였다. 부속관원의 집무시설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별성이 있으나 監營 내에서 외곽에 배치되며 宣化堂에 인접한 배치구성을 보였다.

가시적인 사료를 통한 八道監營의 配置構成을 분석한 결과 全羅監營과 咸鏡監營은 職制別 相關性에 따른 配置構成을 보이고 있어 朝鮮時代 監營의 規범적인 配置構成方式을 보였다. 八道監營 중 규모가 가장 작은 京畿監營과 가장 큰 平安監營은 지역적인 差別性을 강하게 表출하는 배치방식을 보였다. 監營 配置構成의 固定性이 해체되는 19世紀 監營의 配置構成 特性을 보여주는 監營은 江原監營으로 나타났다. 布政門에서 宣化堂을 중심으로 구성된 監司의 領域이 이루는 中心軸의 구성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보였으므로 朝鮮後期 監營 中心軸의 構成은 職制別 相關性和 강하게 나타났다.

## 참고 문헌

- 經國大典, 일지사, 1985
-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1978.
- 국역증보문헌비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 萬機要覽
- 牧民心書, 신역목민심서, 노태준역해, 홍신문화사, 1981.
- 輿地圖書, 국사편찬위원회, 1979.
- 類聚實錄抄, 경성제대법문학부 경제학과주임교수 四方博 편수필고, 고려서림, 1989
- 柳希春, 眉巖日記草
- 八道邑誌, 아세아문화사, 1983.
- 강대민, 『한국의 향교연구』, 학술연구총서2, 경성대학교출판부, 1992.
- 金錫禧, 「朝鮮朝 中·後期 地方官僚의 任期에 관한 研究」, 『釜山大 論文集』31, 1981.
- 金玉根, 『朝鮮王朝 財政史研究(1,2,3)』, 一潮閣, 1984·1987.
-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 博英社, 1983.
- 김필동, 「조선후기지방이서집단의 조직구조(상,하)」, 『한국학보』28,29, 일지사, 1982
- 閔善姬, 「朝鮮後期 東來의 鄉班社會와 武廳」, 『歷史學報』139, 1993.9.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77.
-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 李源均, 「朝鮮時代의 觀察使와 都事의 交替實態」, 『釜山水大論文集』27, 1981.
- 李義權, 「朝鮮後期 地方通治制度研究」, 『國史館論叢』22, 國史編纂委員會, 1991.
- , 『朝鮮後期 地方通治行政 研究』, 全南大, 1989.
- 張仁鎭, 「朝鮮後期 慶尙監司考」, 『圖協月報』21-1,2,3, 韓國圖書館協會, 1990.
- 崔永俊, 『嶺南大路』,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崔完基, 『朝鮮後期 船運業史 研究』, 一潮閣, 1989.



# A STUDY ON THE INTERRELATION OF MAIN AXIS AND OFFICIAL INSTITUTION OF THE PROVINCIAL GOVERNMENT(KAMYOUNG) IN LATE CHOSEON DYNASTY

**Choi, Young Chul**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Ph.D.)

**Park, Eon Kon**

(Hong Ik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The KAMYOUNG is the supreme local government office in CHOSEON dynas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new methodology on research of local government office's prototype in CHOSEON dynasty. Especially this study is the zoning plan of the KAMYOUNG in the late CHOSEON dynasty. It is meant to present the first trial that pursue to total frame of local government in CHOSEON dynasty through the new methodology.

The 18th century is the transitional era when the system of norm was deconstructed. The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of the supreme local government office(KAMYOUNG) was united nationwide and at the same time its deconstruction was carried out in the 18th century. The domain of the governor has fixed in the 18th century, though the scale of the KAMYOUNG was enlarged.

These domain expressed a strong symbolization according to hierarchy in exterior 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 the entire execution of a local government coming soon, the concerns about the localization have been increased rapidly. Under this time situation, as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creation or change of the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so the concerns regarding the traditional aspects of a local government office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without the recognition of this history, as the research of these existing historical materials has been progressed, so the misunderstanding is still left.

Especially, because the government office of CHOSEON is a Confucian nation thinking much of a hierarchy based on Yae - Jae , the hierarchy of this architecture has a deep correlation with the organization of an offic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like following:

Firstly, prescribed characteristic of KAMYOUNG through study of hierarchy in a local government system, human and material composition.

secondly, as the changing progress of KAMYOUNG is compared and analyzed with organization of an office in the center. So characteristics of KAMYOUNG are abstracted. And finally, from this,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KAMYOUNG is revealed, with a deep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characters of organization and architectural structurals. And also , with these methodologies,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d normative frame in CHOSEON dynasty are suggested.